

대구·경북 대학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분석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Academic Library Disability Services in Daegu-Gyeongbuk Area

반달림, BK21 플러스팀,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983134@kmu.ac.kr
여지숙, BK21 플러스팀,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wuhaha@chol.com
오동근, BK21 플러스팀,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odroot@gw.kmu.ac.kr
Dal-Rim Ban, Dept. of LIS, Keimyung University
Ji-Sook Yeo, Dept. of LIS, Keimyung University
Dong-Geun Oh, Dept. of LIS, Keimyung University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법에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시설물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서론

헌법 제10조 및 장애인 복지법 4조와 8조,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IFLA의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에서도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종, 신념, 성별, 나이 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도서관 서비스는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재영(2009)의 논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부분적이며, 도서관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5년부터 대학입시전형에서 장애인 등 대상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애학생의 대학진

학률(전문대포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대학도서관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이외의 서비스도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김현선(2013), 노명수(2006), 박종배(2013), 윤혜숙(2006), 정보성(2015), 정재영(2009) 등이 있다. 이 논문들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현황,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행태,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개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연구는 전국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특정 대학도서관을 위주로 하고 있어, 하나의 광역지역 중심의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도서관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소재 4년제 대학교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서비스의 현

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조사는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문헌조사와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및 담당사서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2. 대학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현황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장애인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장애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는데, 이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2013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와 정재영(2009)의 논문을 참고하여, 시설, 보조장비, 기타 서비스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대구·경북소재 4년제 대학교 중 21곳의 대학도서관(특수대학교 및 도서관이 없는 대학, 도서관 이전 중인 대학 제외)을 대상으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중 장애학생 대상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 3곳이 있었으나, 1곳의 대학도서관만이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21곳의 대학도서관 중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시설 이외의 별도의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장비 제공, 기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6곳(경북대, 대가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으로 나타났다.

2.1 대학도서관 장애인 시설 현황

대학도서관 6곳의 장애인 시설 서비스는 <표 1>과 같다. 시설부분은 장애학생관련 서비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B대학도서관의 경우 출입구에 Help phone을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이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점자블록의 경우 D대학도서관만 설치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대학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C대학도서관의 경우 자동문을 두어 휠체어나 목발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었다. D대학도서관의 경우 점자블록을 두어 시각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을 돕고 있었다.

<표 1> 대구·경북대학도서관 장애인 시설 현황

		A	B	C	D	E	F	합계
시설	경사로	○	○	○	○			4
	자동문			○				1
	휠체어게이트	○	○	○			○	4
	화장실	○	○	○	○	○	○	6
	열람석	○	○	○	○	○	○	6
	승강기	○	○	○	○	○	○	6
	점자블록				○			1
	주차장	○	○	○	○	○	○	6
Help phone		○					1	
합 계		6	7	7	6	4	5	35

하지만 대학도서관 모두 장애인 시설 관련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시설물인 화장실, 열람석, 승강기, 주차장 등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들의 보유현황은 제각각이었으며, 자동문, 점자블록, Help Phone의 보유현황은 매우 적었다.

2.2 대학도서관 장애인용 보조장비 현황

보조장비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시설에 비해 골고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적었지만 각 도서관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는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 E대학도서관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각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은 각 1대씩이었으며 이는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

지 않고 장애학생의 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표 2> 대구·경북대학도서관 장애인용 보조장비 현황

	A	B	C	D	E	합계
전용pc		○	○		○	3
독서확대기		○	○	○	○	4
점자프린트				○	○	2
점자노트북					○	1
음성독서기					○	1
한손장애인키보드					○	1
한손장애인마우스					○	1
손바닥타이핑막대					○	1
휴대용독서확대기					○	1
OCR리더기				○		1
휠체어		○				1
목발		○				1
점자정보확대기				○		1
영상확대프로그램					○	1
음성지원프로그램					○	1
문자인식프로그램					○	1
합 계	0	4	2	4	12	22

그러나 장비는 장애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장비들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에 치우쳐 있어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 대학도서관 장애인 기타 서비스 현황

장애인을 위한 기타 서비스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은 인력부족으로 전담부서나 담당자가 없었고 이용자서비스 관련부서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다만 B, C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조교나 도우미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의 자료이용을 도와주고 있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 서비스 안

내는 부족한 편이었으며, A, B대학도서관만이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었다. B대학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보조장비, 시설, 기타 서비스 모두 안내하고 있어 장애학생이 도서관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안내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했다. 기타 서비스는 6곳의 대학도서관 중 B대학도서관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었다. 특별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님에도 조사한 3가지 항목 중에서 기타 서비스 항목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구·경북대학도서관 장애인 기타서비스 현황

	A	B	C	D	E	F	합계
전담인력/부서							0
도우미지원		○	○				2
홈페이지 서비스안내	○	○					2
대출연장		○					1
반납대행		○					1
책배달	○	○				○	3
도서관이용교육		○					1
합 계	2	6	1	0	0	1	10

3.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구·경북지역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는 시설 및 장비 위주로 제공되고 있었고, 전담인력이 없거나 적어 각 열람실의 사서들이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산의 경우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따로 배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장애학생이 적고 이용률이 낮아 자료나 서비스 등을 따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학생 대상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조차 서비스 제공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도서관의 경우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보조장비나 기타 서비스 등은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열람실에서 도움을 주는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장애인용 자료의 경우 표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용률이 낮아 구비하는 곳이 거의 없었고,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그쳐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4. 결론

대학도서관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는 거의 없었고, 장애학생의 수가 적고 이용률이 낮아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서비스 전담부서의 부재이다. 이는 업무의 과중을 불러올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서비스 안내의 부족이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나 장비들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는 도서관은 두 곳 뿐이었다. 장애학생들의 편리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알림판 등을 통해 서비스를 알려야 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때만 일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장애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서비스 안내 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천적인 장애 외에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와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 등을 고려한다면 대학도서관에서도 이들을 위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보조장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장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장애인들을 함께 고려한 장비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용자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도서관은 상업적인 기관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수의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선 (2013). 대학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 분석 및 국가단위 프레임 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노명수 (2006). 대학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H 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박종배 (2013).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를 위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수준 평가지표 개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 윤혜숙 (2006). 시각장애학생의 대학도서관 이용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0(1), 73-91.